

# 미국인 60% “트럼프 2기 4년 낙관적”...경제호전 전망 우세

### 美 CBS 여론조사...젊은층서 낙관 응답 더 많아 세계 평화·안정 증진 여부 질문에 46%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기 임기 4년에 대해 낙관적이나 비판적이나로 양자택일 질문을 던졌을 때 미국인들의 60%가 낙관을 택했다고 미국 CBS 방송이 자체 의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낙관적 견해를 밝힌 이들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 67%, 30-44세 62%, 45-64세 60%, 65세 이상 51%로, 젊은층이 더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연초에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들에서 낙관적 전망의 비중은 2021년 조 바이든 58%, 2017년 트럼프 1기 58% 등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 버락 오바마 79%, 2001년 조지 W. 부시 64%, 1993년 빌 클린턴 70%, 1989년 조지 H.W. 부시 68%, 1981년 로널드 레이건 69%, 1977년 지미 카터 70%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 대통령의 임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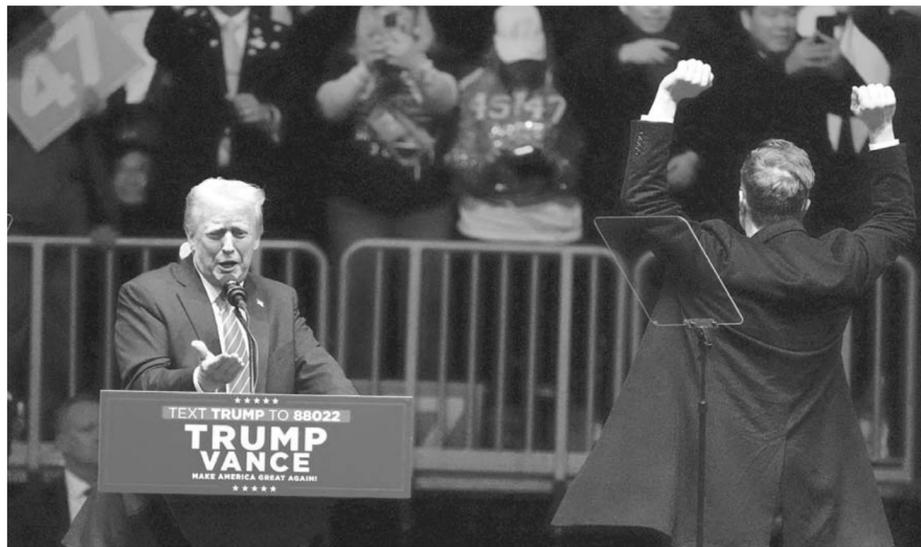
대해 낙관적 전망을 밝히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야당 지지자들이 긍정적 의견을 표현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CBS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CBS 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에 의뢰해 미국 성인 2천174명을 대상으로 이달 15-17일 실시한 것으로, 오차범위는 ±2.5%포인트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좋다’가 38%, ‘나쁘다’가 56%였으나, ‘2025년의 경제 상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좋을 것’이 52%, ‘나쁠 것’이 31%로 훨씬 긍정적이었다.

트럼프 2기의 정책이 식료품 물가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에는 전체 응답자의 39%, 트럼프에 투표한 응답자의 74%가 동의했다.

식료품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답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서는 37%를 차지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 집회에서 테슬라 CEO이자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으나 트럼프에 투표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6%에 불과했다.

변화가 없으리라는 답은 전체의 24%,

트럼프 지지자의 20%를 차지했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응답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질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전

체의 42%와 트럼프 지지자의 77%가 그렇다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반응은 전체의 30%,

트럼프 지지자의 20%를 차지했다.

악화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8%, 트럼프 지지자의 3%였다.

트럼프의 정책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46%, 트럼프 지지자의 88%가 긍정으로 답했다.

평화와 안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37%, 트럼프 지지자의 4%였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은 전체의 16%, 트럼프 지지자의 8%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양자택일 질문을 던졌을 때 전체 응답자의 55%와 트럼프 지지자의 90%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민자 추방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물어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찬성 의견이 확실치 우세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으면 찬성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악시오스와 입소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 석방

### 첫 맞교환...‘살얼음판’ 협정 이행 본궤도 오르지 주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3명을 돌려보낸 데 이어 이스라엘도 수감자 90명을 석방했다.

휴전 협정 발효 이후 양측의 첫 번째 ‘맞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이에 따라 살얼음판을 걷는 듯 진행돼 온 1단계 협정 이행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요르단강 서안 오퍼 감옥과 예루살렘 구치소의 테러리스트들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납치했던 로미 고넨(24), 에밀리 다마리(28), 도론 스테인브레처(31) 등 여성 인질 3명을 전날 송환한 지 7시간 만에 대응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석방된 이들의 대부분 여성이거나 미성년자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혐의사실은 돌을 던지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내용부터 살해 시도까지 다양하다고 AP는 전했다.

석방된 수감자 중에는 1970년대 이스라엘 공격에 연루된 세속 좌파 세력 소속 여성 조지안 칼라다자라(62)가 포함됐다.

이스라엘은 그를 2023년 체포한 후 무기한 연장이 가능한 행정 명령에 따라 구금해 인권단체로부터 비판받았다. 이날 석방을 앞두고 요르단강 서안 오퍼 감옥 인근에는 하마스 조직원이 포함된 환영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에게 공개적인 축하 행사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이들은 폭죽을 쏘거나 휘파람을 불고 구호를 외치며 석방자를 환영했다.

양측이 합의한 휴전안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단계인 6주(42일)간 교전을 멈추고 일부 인질을 교환한다. 이 기간 하마스는 여성과 어린이, 고령자를 포함한 인질 33명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737

명을 석방한다. 100명 가까운 인질 모두가 석방되는 것은 휴전 2단계에 이뤄지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전날 1단계 휴전의 개시를 앞두고도 하마스의 석방자 명단 통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져 협정 발효가 예정보다 3시간 가까이 늦어지고, 이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공습을 재개하는 등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태다. /연합뉴스

### “이시바 내각 지지율, 출범 후 최저”

이시바 시계루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8-19일 2천42명(유효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벌인 여론 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8%로, 처음 3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내각 출범 직후인 지난해 10월 48%였으나 11월 31%, 12월 30%를 거쳐 이달 추가 하락했다. /연합뉴스

## 이란 법원, 전신 문신 인기가수에 사형 선고

###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 모독 혐의

이란의 한 인기 가수가 신성모독죄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영국의 일간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대법원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아미르 호세인 마그수들루(37)가 받은 징역 5년 형이 가법다면서 상소한

검찰의 요구를 수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마그수들루는 ‘아미르 타탈루’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언더그라운드 가수다.

리듬앤드블루스(R&B)와 랩, 팝뮤직을 결합한 음악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얼굴과 전신에 한 화려한 문신과 이란 정치권에 대한 대담한 가사, 이란의 젊은 세대에 미치는 큰 영향력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노래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는 2018년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거주해오다가 2023년 터키 경찰에 의해 이란으로 송환돼 구금 중이다.

타탈루는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선전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출간하고 매춘을 옹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란 대법원의 이번 사형 선고는 최종 판결이 아니며, 타탈루 측이 상고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

## “용기백배하라”...김정은, 파병군에 신년 메시지

### 美 워싱턴포스트 보도...“지휘관 대독 메시지 받아적은 듯”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병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신년 메시지를 입수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은 편지에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림

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 주시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과된 군사 임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싸워주길 바라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런 메시지가 담긴 편지의 마지막에는 “김정은은 1231”이라고 적혔다.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가 담긴 이 편지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측이 격전을 벌여온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파란 잉크의 손 글씨로 적힌 이 편지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평양에서 군인들에게 보냈거나, 지휘관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소리 내어 읽고 그것을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